



나. 무. 에. 얼. 힌. 동. 화/자작나무

자작나무가 된 하늘나라 공주

글·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중 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천신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태양 공주, 둘째 딸이 달 공주, 막내딸이 흰구름 공주였습니다.

어느 날, 흰구름 공주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홍수가 나서 산도 들도 마을도 모두 물에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높이 차올라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궁전은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궁전에서 구름 조각을 떼어내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흰구름 공주는 까치들을 만났습니다. 까치들은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까치들은 흰구름 공주를 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까치들을 구해 주어 배 안에 태웠습니다.

“어찌다가 물에 빠졌니? 너희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아니니?”

흰구름 공주가 묻자 까치들이 대답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들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어요. 물이 하늘에 닿아 있잖아요.”

“저런! 그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저희들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세상에! 어찌다 홍수가 일어났니?”

“천신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지만, 이제 와서는 이들을 모두 없애려고 홍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바마마도 너무하시는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귀

한 생명들을 물로 쓸어버리려 하시다니,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흰구름 공주는 인간 세상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동물들을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배 안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집어 들어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변했습니다.

물에 빠져 있던 사람과 동물들은 나무 주위로 모여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배를 만든 뒤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까치들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저 나무에 보금자리를 만들겠어요. 공주님, 고마워요.”

까치들은 흰구름 공주에게 인사하고 나무로 가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하늘나라 궁전에 와서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동물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을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어떻게든 살려야 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흰구름 공주는 밤새 뒤척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물을 빼는 거야. 그러면 산도 들도 마을도 모습을 드러내겠지. 하지만 이 일은 물의 신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물의 신은 아바마마의 신하인데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바다로 변한 저 곳에 산이 솟아나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사람과 동물들을 살릴 수 있을 거야.’

흰구름 공주는 문득 취보궁을 머릿속에 떠올렸습

니다.

취보궁은 천신의 비밀 궁전으로서, 33만 3천 개의 보물 상자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취보궁에는 별의별 보물이 다 있다고 했지? 어쩌면 산 하나쯤 만들 만한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흰구름 공주는 취보궁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취보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 궁전이었습니다. 천신만이 그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궁전 문 열쇠는 천신이 갖고 있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잠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을 빠져 나와 천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천신은 세상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 천신의 옷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신의 방에서 나와 취보궁으로 향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열쇠를 훔친 것을 알면 천신은 공주를 가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기에 큰 벌을 내릴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들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벌을 받아도 좋아. 나 하나쯤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

흰구름 공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취보궁은 어둠에 싸여 있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취보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에는 보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진귀하다는 보물은 모두 여기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많네. 과연 내가 찾는 보물이 이 안에 있을까? 보물을 찾으려면 일일이 상자를 열어 봐야 하잖아.’

흰구름 공주는 보물 상자들을 둘러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우선 아무 보물 상자나 골라 뚜껑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금황색 가루가 나왔습니다.

다른 보물 상자를 열어 보니 흑황색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쓰는 보물인지 모르겠네. 흠처럼 생긴 걸 보니 혹시 내가 찾는 보물이 아닐까?’

흰구름 공주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천신이 깨어나 취보궁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기 전에, 어서 보물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금황색 가루와 흑황색 가루가 담긴

보물 상자를 들고 서둘러 취보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보물 상자들을 배에 싣고 인간 세상으로 갔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먼저 금황색 가루가 담긴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보물 상자에서 가루를 한 주먹씩 꺼내 물 위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상자가 바닥을 보일 때까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엉뚱한 것을 가져왔나? 어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흰구름 공주는 흑황색 가루가 담긴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루를 한 주먹씩 꺼내 물 위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루가 많이 뿌려진 곳에는 크고 웅장한 산이 솟아나고, 가루가 조금 뿌려진 곳에는 나지막한 언덕이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이것을 보고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됐다. 사람과 동물들이 피할 곳이 생겼어.’

흑황색 가루가 많이 뿌려진 곳은 바로 만주에 있는 흥안령 산맥입니다. 흰구름 공주는 맨 먼저 금황색 가루를 뿌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흥안령 산맥에는 황금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물바다가 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신의 부인인 바람, 비, 천둥 번개, 우박의 여신이었습니다. 여신들은 천신의 명으로 인간 세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구름 공주가 물 위에 흑황색 가루를 뿌리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맙소사! 가루를 뿌리자마자 물 위에 산이 솟아나네!”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지?”

여신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 인간 세상에서 생긴 일을 천신에게 보고했습니다.

천신은 깜짝 놀라며 취보궁 열쇠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막내가 열쇠를 가져가 취보궁 보물을 훔쳐 갔구나. 고약걸! 당장 가서 막내를 잡아 오나라!”

천신의 명령으로 하늘나라의 신들은 흰구름 공주를 잡으려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흰구름 공주는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아바마마는 나를 잡아 오라고 신들을 보냈을 거야. 아, 어디로 달아나지?’

흰구름 공주는 혼자 궁리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

나·무·에·얼·힌·동·화/자작나무

간 것입니다.

‘언니들을 찾아가자. 숨겨 달라고 부탁해 보는 거야.’

큰언니인 태양 공주는 하늘나라에 궁전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흰구름 공주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고는 궁전 주위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흰구름 공주는 너무 뜨거워 태양 공주의 궁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태양 공주는 흰구름 공주에게 미안했습니다.

‘막내야, 나를 용서해 줘라. 나는 너를 내 궁전에 숨겨 줄 수 없단다. 아바마마가 아시면 큰 벌을 받게 될 테니까. 그러니 멀리멀리 달아나라.’

흰구름 공주는 달 공주의 궁전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달 공주도 천신이 두려워 궁전 주위에 찬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따라서 흰구름 공주는 너무 추워 달 공주의 궁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언니들이 아바마마 때문에 나를 피하는구나. 할 수 없지. 인간 세상으로 달아나야겠다.’

흰구름 공주는 구름으로 만든 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노을로 지은 빨간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 흰구름 공주는 숲 속에서 신들과 마주쳤습니다.

“앗, 흰구름 공주다! 잡아라!”

흰구름 공주를 먼저 발견한 바람의 여신이 소리쳤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몸을 꺾 돌려 부리나케 달아났습니다.

바람, 비, 천둥 번개, 우박의 여신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흰구름 공주는 넓은 꽃밭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꽃송이를 머리에 꽂고 꽃밭 속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신들은 흰구름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신들은 꽃밭에 천둥 번개의 여신만 남겨 놓고 천신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흰구름 공주가 꽃밭에 숨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넓은 꽃밭에 꽃들이 수없이 피어 있거든요.”

천신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쫓쫓, 어리석기는……. 그럴 때는 숲에 눈을 많이 내리게 하는 거야. 얼어 죽기 싫으면 꽃밭에서 나오겠지.”

여신들은 천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꽃밭으로 돌아와 천둥 번개의 여신에게 많은 눈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숲에는 눈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꽃밭은 눈 속에 파

묻혔고, 꽃들은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흰구름 공주는 그 때까지도 꽃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뒤집어쓴 채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천신은 흰구름 공주가 격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밭으로 내려와 소리쳤습니다.

“꽃밭에서 나와 잘못을 빌어라.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러나 흰구름 공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왜 용서를 빌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은 아바마마예요. 죄 없는 사람과 동물들을 몰로 쓸어버리려 하셨잖아요. 저는 절대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아요!”

흰구름 공주는 이렇게 외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은빛 찬란한 자작나무로 변했습니다.

홍안령 산맥에는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그 숲에서 흰구름 공주의 목소리가 들린답니다.

“저는 절대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작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쭉쭉 잘 자랍니다. 그것은 흰구름 공주를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에, 낮에는 태양 공주가 햇빛을, 밤에는 달 공주가 달빛을 쏟아부으며 정성껏 돌봐 주기 때문이라 합니다. 

